

광주 초·중·고 도서 구입비 '쥐꼬리'

작년 10곳 중 9곳 규정 액수 이하 지출 사립학교 법인 전입금 평균 18% 불과

시교육청 행정사무 감사

지난해 광주 시내 초·중·고교 10곳 중 9곳은 도서구입비를 시교육청 지침에 훨씬 못미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학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 납부를 기피, 부족분을 국고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교육위원회 장희국 위원은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29일 시교육위 제170회 임시회에서 "지난해 학교의 도서구입비가 너무 적게 집행됐고, 올해 도서구입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과 어긋나게 편성·집행됐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장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시내 초·중·고교 285곳 중 지침에 맞게 도서구입비를 집행한 학교는 10.5%인 30곳에 불과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는 독서교육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학급당 40만원, 중·고교는 학급당 50만원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의 67.7%인 193곳이 지침에 규정된 액수의 절반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지출했고, 20% 미만을 집행한 학교도 8곳이나 됐다.

올해 도서구입비 예산 및 집행 실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의 29.9%인 86곳은 지침에 규정된 액수의 100% 이상을 도서구입에 지출했지만, 나머지는 규정에 못미쳤다.

체육중은 도서구입 관련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양산초, 극락초, 고려중, 조대여중, 정광중, 송의고, 광일고, 인화학교 등 8곳은 8월 현

제까지 단 한 권도 책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위원은 "시교육청이 각종 행사를 통해 독서교육을 강조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도서구입 없이 독서교육만 강조하는 것은 총이나 실탄 없이 병사들을 전장에 내모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윤봉근 위원은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 부담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정 부담금은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이다.

윤 위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68개 사립 중·고교가 지난해 내야 할 법정 부담금은 총 96억6천859만원이나 납부액은 18%인 17억7천175만원에 불과했다. 부족액은 국고로 충당됐다.

특히 정광고(1%), 서진여고(2%), 고려고(2%), 수피아여고(2%), 동아여고(2%), 동일전자정보고(4%), 송원고(5%), 세종고(5%), 설원여고(5%), 경신여고(5%), 대성여고(6%), 광일고(6%) 등과 수피아여중(1%), 경신중(1%), 정광중(1%), 동아여중(2%), 고려중(3%), 서석중(4%), 송원중(4%), 임곡중(4%)은 전입금 비율이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윤 위원은 "국가가 사학의 책임 경영과 자율성 신장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학 경영구조 개선이나 법정부담금 확보 등 자기 노력을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학법인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장애우 전용 '행복 콜택시' 내달부터 광주 도심 누빈다

시, 1단계 8대 운행

요금 일반택시 30%

광주시가 장애 등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도입한 전용택시(사진)가 다음달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사)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이 날부터 '행복콜택시'로 명명된 교통약자 전용택시를 운행하기로 했다.

7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개조한 이 차량은 휠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는 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 등을 갖췄으며 1단계로 8대가 운행된다.

이용요금은 일반(중형)택시의

30% 수준으로 기본요금(2Km) 540원, 거리요금 173m당 30원, 시간요금 41초당 30원이다. 연중 무휴로 하루 24시간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1~2급 장애인 또는 3급 지적·파괴성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 교통 약자를 동반한 가족 등이다.

시는 내년에 12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대씩 추가 도입해 모두 80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이용 신청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62-383-0130)에 이용 시간 기준 최소한 2시간 전에 해야 하며 탑승 때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정삼필기자 who@kwangju.co.kr

한 끼 밥값 아껴 北 결핵 어린이 도움시다

'한겨레 한밥상 광주운동본부' 내달 8일 출범

한 끼 밥값을 아껴 결핵으로 고통받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한겨레 한밥상 광주운동본부'가 다음달 8일 공식 출범, 성금 모금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29일 "민주·인권·평화를 지향해온 광주 정신을 살려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북한 결핵어린이돕기 한겨레 한밥상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운동에 나선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 8일 오후 3시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겨레 한밥상 광주운동본부' 발대식

을 갖기로 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24일 준비위원회를 꾸려 본부장에 조국현 1등광주법시민주진위원회 위원장을 추대했다. 위원들은 종교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행정기관 대표 등 31명으로 구성됐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우선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3천여명의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끼 안 먹기 운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한 끼 식사 값(1인당 5천 원 이상)을 성금으로 모금하여 발대식에서 운동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각급 기관과 종교단체, 기업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앞으로 1년동안 자율적으로 성금 모금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 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북한 결핵어린이돕기 범국민운동본부'(총재 이윤구)는 다음달부터 1년간 전국에서 190억원을 목표로 성금 모금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모금된 성금은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결핵치료와 및 영양제 구입, 양육 지원 등에 사용된다.

후원 계좌는 광주은행 8000-0004-1122(예금주 (사)세계결핵제료운동본부), ARS 전화 030-300-0022(1통화에 2천원).

/정삼필기자 who@kwangju.co.kr

남구 '효사랑 녹색산업전' 내일 개막

관람·공연·경연·녹색 체험... 일주일간 다양한 행사

광주시 남구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이 다음달 1일 개막된다.

주무대인 남구 대충동 일대 15만㎡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되는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은 관람, 공연,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녹색산업전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콩단지, 동과(冬瓜)단지, 식물터널, 다양한 종류의 꽃 단지 등으로 구성된 녹색 체험장. 길이 60~90cm, 무게는 20~30kg에 달하는 동과나 꼬투리 길이가 최대 90cm까지 되는 갓공들부, 호리병박, 여주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채소부터 수세미를 이용한 터널 등 친숙한 채소까지 다양한 채소를 체험할 수 있게 구성돼 있다.

뿐만 아니라 미꾸라지 잡기와 고구마 캐기, 어르신 댄스공연, 다문화 가

정축제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준비돼 있다.

여치집 만들기과 동과 비누만들기, 동과 요리체험, 네일아트와 페이스페인팅, 도리개 콩 타작 체험을 비롯해 한 제기차기, 널뛰기, 다듬이질 경연대회 등 민속놀이도 체험할 수 있다.

생생한 축제를 자랑하자는 녹색산업전의 취지를 살려 지난 6개월 동안 남구가 재배해 온 특용작물인 '동과'와 '47종의 콩'을 재료로 각종 음식과 2차 가공식품을 선보이는 '동과 산업전'과 '콩 산업전'도 눈에 띈다.

축제 기간 동안 열리는 각종 공연도 산업전의 재미를 더해줄 것으로 보인다. 개막 첫날에는 송대관, 현숙 등 인기 트롯트 가수 10명이 참여하는 축하쇼가 오후 7시부터 열리며, 둘째 날에는 경로위안잔치와 지역밴드

남구 녹색문화산업전 주요행사

일시	행사내용	시간
1일	길놀이 축하공연	오후 1시30분 ~ 오후 7시
2일	경로위안잔치 지역밴드연희회 공연	오후 11시 ~ 오후 7시
3일	농산물품평회 이리랑공연단 공연	오후 10시30분 ~ 오후 4시30분
4일	다문화축제 청소년 락 콘서트	오후 11시 ~ 오후 7시
5일	건강도시선포식 중국기예단 공연	오후 2시 ~ 오후 3시

연합회 합동공연이, 셋째날에는 아리랑 공연단의 공연과 국악 대공연, 넷째날에는 중국기예단 공연과 청소년 락콘서트가 이어진다.

황일봉 남구청장은 "효사랑 녹색산업전은 고소능 농산물을 발굴 보급해 죽어가는 농촌을 회생시키고, 대촌 일대를 국가식량 자원이기로서 개발하기 위한 기반조성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

'좋은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동구영남중앙시장)
(062) 227-9940

총장점 (금남공원입)
(062) 227-9970

롯데관광
LottoTour

11월 1577=3000
(11월 15일 ~ 17일)

무안 → 홍콩 직항 전세기 취항 기념

10월 12일(일) 출발시 동반자 1인 50% 할인
(만 1회, 한가족 10명, 푼 포함)

• 공행: 미카오 삼전, 주말 8월 849,000원
(동반자 1인 425,000원)